

# SOCIETY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 고쳐 쓰고 다시 쓰고...친환경 리사이클링 '주목'

### “영산강, 더 깨끗해졌다” 11년 중 수질 가장 좋아

영산강의 수질이 하수 관련 시설 개선 등의 효과로 최근 11년 중 가장 깨끗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산강의 수질이 하천 수질 등급 지표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볼 때 최근 11년 중 가장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산강 수계를 대표하는 6개 지점의 2024년 BOD 평균 농도는 2.3mg/l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0년(2014~2023년) 평균 3.5mg/l와 비교해 34% 개선된 것이다.

지난해 강수량(1291mm)이 2023년 강수량(2116mm) 대비 61%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수질은 23% 개선(2023년 3.0mg/l→2024년 2.3mg/l)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그간 영산강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광주 하수 관련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대형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하천 주변 야적 폐기의 하천 유입 최소화 등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영산강 상류 농업용 4대 배, 보, 수계 내 중소 농업용 저수지 등에 대한 효율적인 수자원 연계운용을 통해 영산강의 수질이 개선되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환경보호 거점 '우뚝' 동구라미 가게·수리수선 강좌 등으로 자원 순환 실천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가 개관 1년 만에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1일 산수동에 문을 연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구라미 가게, 동구라미 카페, 스마트 재활용 동네마당, 수리수선실, 목공실 등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일상 속 고장 난 물건을 고쳐 쓸 수 있는 수리수선 프로그램, 단체 탐방·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인 1층에는 동구라미 가게와 스마트 재활용 동네

마당, 동구라미 카페 등이 마련돼 있다. 동구라미 가게와 스마트 재활용 동네마당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종량제 봉투 배출함, 캔·페트병·종이팩 회수함 등이 있어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캔·페트병 등 품목별 포인트로 전환한 뒤 ‘동구라미 온(ON)’ 앱에서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캔·페트병·종이팩 등 재활용품 2만 2674kg이 수집됐다.

동구라미 카페도 동구 직원과 주민이 쓰지 않는 텀블러를 기부받아 필요한 이 용자에게 대여했다. 같은 기간 4855명 중 4186명이 일회용 컵 대신 다화용 텀



광주 동구 산수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자원순환 수리 비캉스'를 찾은 주민들이 우산 실재 수리를 받고 있다.

블러를 이용했다. 센터 프로그램 중 수리수선실 강좌, 자체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리수선실 1017명, 탐방 프로그램 1292명(120회), 동구라미 환경교실 1997명(104회)이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환경강사 27명을 양성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봉·폐기, 전자폐기물·플라스틱 처리 방법 등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했다.

자원순환 활동 누적 건수(2024년 3월~2025년 3월5일)는 9만7055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8087건, 하루 평균 265건의 분리배출이 이뤄진 것이다.

이외에도 학운동 행정복지센터, 산수동 성당 등에서 열린 행사에 다화용기컵·접시 등 2만8850개(누적)를 제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였다.

동구 관계자는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깔끔하고 똑똑한 배출을 이끄는 스마트 재활용 동네마당, 고물이 보물이 되는 동구라미 가게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다”며 “사람 중심의 자원순환을 이끌어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광주교육청-지역 대학, 인재육성 협력 '맞손'

#### 광주교대 등 6개 대학과 RISE사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대학들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2일까지 광주교육대, 광

주보건대, 광주여대, 남부대, 서영대, 조선간호대 등 지역 6개 대학과 서면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RISE 사업은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올해 882억원을 투입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RISE 사업 목표에 따라 각 대학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지역사회와 대학 간 자원 공유, 예비인재 양성 및 취·창업, 정생태계 구축 등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또 △늘봄학교 및 통합돌봄 지원(광주교대, 광주여대, 광주보건대, 남부대) △고교 연계형 예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광주여대, 광주보건대, 남부대, 서영대, 조선간호대)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광주교대, 광주보건대) △고교연계 교육과정 개발(광주교대, 조선간호대) 등 각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시교육청은 지역 대학에 교육협력

관을 파견해 23억원 규모의 63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RISE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지역의 상생 발전과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는 길에 지역 대학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 : 100%~80%  
본인부담금 : 0%~2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아침체조 (매일)

웃음치료 (외부강사)

간호사 케어

- ✓ 넓고 쾌적 최신식으로 신축 고급요양원
- ✓ 맞춤형 전문케어 (치매, 파킨슨: 간호사2명, 물리치료사1명, 요양보호사23인)
- ✓ 축락의사(월2회), 외부강사(월18회)
- ✓ 물리치료 기기 다수 다양, 편리하게 이용
- ✓ 상차림 및 행사 (생신 및 어버이날, 명절 등)
- ✓ 넓은 공동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신축 고급 실내

음악(외부강사 초빙)

물리치료

**파인트리 요양원** ☎ 062) 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내남동)



어린이 안전 캠페인 새학기를 맞아 12일 오전 광주 서구 주월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캠페인에 참석한 서구청 공무원 및 광주 안전모니터봉사단, 어린이안전학교 회원들이 통학로 안전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초등 신입생에 200만원 장학금 지급 '화제'

#### 장성 북이초·동문들 힘 모아 입학생 '0명→5명' 늘려

전남의 한 시골학교 신입생들에게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돼 화제다.

12일 장성 북이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2025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 5명 모두에게 20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그 사연에 관심이 쏠린다.

북이초는 지난해 올 신입생 대상자를 파악하다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것을 알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부랴부랴 신입생 모집 TF팀을 꾸려 1학년 입학생을 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졸업생 동문들에게 안타까운 상황을 전달했다.

상황을 인지한 동문들은 긴급하게 1000만원을 모아 장학금으로 내놨다. 매년 모교 사랑을 실천하며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해 왔는데 올해는 더욱 절박한 마음을 담았다.

신입생 모집 활동은 교장과 교직원들이 직접 나섰다.

장성지역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흥

분활동을 벌인 결과 2025학년도 신입생이 0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이 학생들은 모두 장성읍에 거주하면서 통학할 예정이다.

한시름 놓았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신입생 유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2025학년도 입학생이 누리는 혜택”이라는 공지문을 띄우고, ‘인라인스케이트 제공, 교육활동 전액 무료, 저녁돌봄 7시까지, 건강스포츠클ubs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주소 이전 없이도 입학이나 전학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홍보하고 있다.

또 병설유치원 입학생에게 20만원씩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6년간 재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30만원씩의 졸업축하금도 지급한다.

북이초 관계자는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 폐교가 우려된다는 소식에 동문과 지역사회가 응답했다”며 “북이초의 100년 전통과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일반고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 시교육청, 자기주도학습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모든 일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9년 빛고을고, 첨단고, 광주인성고, 서강고를 시작으로 올해 2월 고려고, 장덕고까지 총 51개 학교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학습공간 유연화, 지원 공간 복합화, 공용공간 활용성 증대 등에 초점을 두고, 교육시설 전문가와 공간 기획자(퍼실리티)의 컨설팅을 받아 학교, 교사, 학부모가 직접 교실, 복도, 도서관 등 학교 주요공간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토론과 협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개별 학습이 가능한 1인 학습 공간, 다목적 강의실 등이 마련돼 학생들이 학습 방식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인수 기자 joinus@